장관 인선, 김부겸 · 도종환 · 김현미 · 김영춘

〈행자부 장관 후보〉 〈문체부 장관 후보〉 〈국토부 장관 후보〉 〈해수부 장관 후보〉

김부겸, "지방분권 · 균형발전 · 국민통합 실현할 적임자"
도종환, "문화체육예술 공동체 · 관광 한국 새 틀 만들 것 기대"
김현미,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과제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
김영춘, "세월호 진상규명 등 해수부 주요 과제 해결할 적임자"

김부겸 행자 후보

도종환 문체 후보

김현미 국토 후보

김영춘 해양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내각 구성을 미뤄오던 문 대통령이 이날 장관 인선에 나선 것은 전날 인사원칙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선을 발표한 네 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 현역의원들이다. 이는 잇따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점을 고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현역의원을 우선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지역구도를 깼다는 상징성과 4선 중진 의원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입각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평가돼 왔다.

1991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계에 입문, 16~18대 총선까지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 출사표를 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20대 총선에서 마침내 대구 수성갑에서 승리를 거뒀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실현할 적임자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때로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사회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에 헌신했다"며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국가체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도 의원은 '접시꽃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등의 시로 유명한 시인이자 교사 출신이기도 하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대 총선에서는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의 전모를 파헤치는데도 앞장섰다.

박 대변인은 인선배경과 관련해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에서 의정경험이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새 정부 문화체육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인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체육예술 공동체와 관광 한국의 새 틀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현미 의원은 전북 정읍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다.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첫 발을 내딛었다. 경기 고양일산서구에 출마한 18대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두며 3선 의원이 됐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등으로 일했으며 열린우리당 공동대변인,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 문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초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대표적인 친문계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박 대변인은 "3선 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까지 맡아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되는데 발굴의 정치력과 전문성을 보여줬다"며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문제 해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과제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에 내정된 김 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16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2003년 이부영 전 의원, 김부겸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고 17대 총선에서는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후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며 고향 부산으로 내려간 뒤 20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는 수산업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해수부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최고 적임자"라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현역 국회의원 4명을 장관 내정자로 동시 발표한 것에 대해 "검증을 쉽게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일각의 해석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의 구현이란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피우진, "우편향 논란 '나라사랑교육' 전면 개편"

"보훈단체 관리 · 감독 강화할 것… 보훈가족이 중심 되는 따뜻한 보훈 정책 펴겠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사진)은 30일 '나라사랑교육'의 이념편향 논란과 관련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식 교육은 안 된다"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보훈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2011년 주변국과의 역사분쟁 대응과 남북간 대치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생겨났지만, 지나친 우편향 이념교육이라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피 처장은 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 ·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향군인회에 대해 "2015년 회장이 구속되고, 아직 새로운 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익사업에서도 경영 악화를 겪고 있어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 처장은 이어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통해 대통령 국정방침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보상금 수당 지원확대, 의료 복지 안전시설 확충, 독립 유공자 예우 강화, 2019년 3 · 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피 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을 찾아서 제대로 예우하고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에 기여토록 국가보훈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령과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을 위해 복지 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해 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권회복을 위해 힘쓴 독립유공자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시정부 기념관 개설을 추진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기를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피 처장은 애국심의 상징이자 여성들을 고위직에 많이 기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안호영 의원, 국회 예결산특위 위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활동할 소속 정당 20명의 의원을 확정하면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안호영 의원을 포함시켰다.

안호영 의원은 "호남에서 유일한 여당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2018년 정부예산안을 다루게 되었다"면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30일 예결위 구성을 마쳤으며, 새롭게 구성된 예결위는 문재인 정부의 첫 일자리 추경 예산과 2018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다루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일자리 대책과 지역균형발전, 보육 대책 등 주요 정책을 펴기 위한 예산 배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호남에서 유일한 예결특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11월 구성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도 호남몫으로 참여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박광온 "인사원칙, 후퇴 아냐… 구체화하자는 것"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후퇴한 게 아니고 대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구체성을 갖고 국민들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적용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지 원칙을 후퇴시킨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그는 "(강 후보자의 경우) 강남 8학군으로 학교를 옮긴 게 아니지 않느냐"며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다 해서 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상조 교수의 경우 해외연수를 가면서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을 그대로 비워놓고 원래 자기 집 쪽으로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소를 옮겨놨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종회, 부안 직소천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 선정

부안군 변산면 직소천이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200억 원 규모의 치수사업 및 친수공간이 직소천에 조성된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17년도 지방하천 정비 공모사업에 응모한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안군 변산면 직소천 정비 사업이 최종 선정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산 직소천에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투입되어 안전한 친수공간과 관광자원이 새롭게 조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소천 침수예방 및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광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는 여울과 웅덩이, 하중도, 수초섬과 데크 물놀이시설이 함께 조성되고 개발됨으로써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게 될 부안군 변산면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변산반도의 또 다른 맞춤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